

# “9兆 온라인 광고 시장 잡아라” 네이버·카카오, 시로 취향저격

무선 청소기 ‘라이브쇼핑’ 방송을 시청한 뒤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청소용품 광고가 따라붙는다. 페이지를 넘겨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관심을 둔 만한 청소 관련 제품을 선전하는 배너가 화면 곳곳에 등장한다. 같은 광고가 반복되는 것도 아니다. 로봇 청소기를 비롯한 대안 제품 광고와 청소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가구 같은 관련 제품 광고가 골고루 노출된다.

◆타기팅 기술 총동원  
‘맞춤형’ 온라인 광고의 효과는 상당하다.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광고를 ‘살포’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클릭률이 2~3배가량 높게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인공지능(AI) 신기술을 광고 플랫폼에 앞다퉈 적용하고 있는 배경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최근 광고 플랫폼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네이버는 AI 신기술을 활용해 ‘타기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자 성별, 검색 이력 등을 토대로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식이다. 20대 남성 이용자에게 최근 한 달간 그 연령대가 가장 많이 검색하거나 구매한 신발 브랜드 광고를 보여주는 게 첫걸음이다. 특정 브랜드나 신발 기능을 검색한 이력이 있다면 광고하는 제품군 범위를 이에 맞게 좁힌다.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사용 이력



네이버, AI 기술로 정밀 추적  
쇼핑데이터 분석해 광고 결정

카카오는 ‘카카오모먼트’ 고도화  
소비자 참여형 광고도 개발  
“경기 침체 영향 적고 수요 꾸준”

을 기반으로 검색·디스플레이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 기반 플랫폼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했다”며 “쇼핑 관련 빅데이터를 적극 분석하는 등 광고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머신러닝 기술을 동원해 개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카카오모먼트’를 고도화하고 있다. 광고 노출을 통한 일방적 전달을 넘어 이용자가 작간 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온라

인 광고도 개발 중이다.  
◆“경기침체 영향 적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것은 이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지난해(8조230억원)보다 약 10% 증가해 9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동영상, 라이브 방송, 메시지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경기 침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은 정체돼 있다. 불경기로 광고 수요가 줄면서 분기 영업이익이 네이버는 3000억원대, 카카오는 10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

두 회사는 광고 플랫폼 고도화가 실적 개선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온라인 광고는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이 적다. 광고하는 제품의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철저히 실수요자를 골라 공략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과 채널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카카오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환경 발전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새로운 온라인 광고 형태가 발달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 “국물 안 쏟아요” ... 더 똑똑해진 LG 서빙로봇

3세대 클로이 서브봇 공개  
울퉁불퉁 바닥도 부드럽게 이동  
10대 넘게 운용해도 충돌 없어



LG전자가 오는 19일 공개할 예정인 3세대 클로이 서브봇. 국물이 담긴 음식을 싣고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LG전자 제공

LG전자가 더 똑똑해진 서빙용 로봇 ‘클로이 서브봇’ 3세대 모델을 공개한다. 클로이 서브봇은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10대 넘는 로봇이 한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다.

LG전자는 오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WIS) 2023’에서 새로운 클로이 서브봇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2020년 1세대가 출시된 후 LG전자는 꾸준한 성능을 개선한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클로이 서브봇은 ‘LG 클로이 가이드봇’ ‘LG 클로이 캐리봇’ ‘LG 클로이 UV-C봇’ 등 LG전자의 로봇 라인업 중 하나다. 6개 바퀴에 독립적으로 서스펜션을 부착해 국밥이나 라면, 음료 등을 싣고도 불규칙한 매장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로봇이 갑자기 멈추거나 출발할 때, 울퉁불퉁한 표면을 주행할 때 로봇이 떨어 국물이 넘치는 현상을 최소화했다.

주행 영역도 대폭 늘어났다. 라이더 센서와 3차원(3D) 카메라로 주변 공간을 인식하고, 자동문도 스스로 통과할

수 있다. 로봇끼리 서로 통신도 가능하다. 10대 넘는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다. 완전 충전하면 11시간 연속 주행이 가능하다. 자동·수동 겸용 충전 방식도 도입됐다.

한 번에 서빙할 수 있는 양도 늘었다. 기존 제품보다 트레이가 넓어져 한 번에 40kg까지 실을 수 있다. 식기가 무거운 양식이나 그릇 개수가 많은 한식을 옮기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매장 환경과 옮기는 물품에 맞게 트레이 높이를 조절하거나 뺄 수도 있다. 트레이에

올려진 물건의 무게를 로봇이 감지하기 때문에 고객이 음식을 내리면 따로 출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이동한다. 트레이에 식기가 가득 차면 스스로 퇴직구로 향하기도 한다.

로봇엔 10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있다. 대기 고객에게 각종 홍보영상과 메뉴를 보여주고, 자리가 나면 테이블까지 안내해준다. 노규찬 LG전자 로봇사업담당 상무는 “차별화된 로봇 솔루션 개발과 적용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 “트위터 ‘비밀친구 트윗’ 남들도 다 봤다”

▶ 뉴스 카메  
외신, 트위터 보안 허점 지적  
“대규모 해고로 서비스 저하”

트위터의 비밀 친구 기능인 ‘트위터 서클’에 보안상의 허점이 발견됐다. 선택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비밀 트윗이 노출됐다. 일론 머스크가 단행한 대규모 해고 여파로 트위터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인스타그램의 ‘친한 친구 리스트’처럼

특정 그룹에만 도달해야 할 서클 트윗이 의도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가 지난해 처음 내놓은 트위터 서클은 트윗을 받는 사람을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서클에 포함된 사람들만 답글을 쓰고 반응을 보낼 수 있다. 서클에 추가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50명이다.

테크크런치는 실제 트위터의 한 계정에서 올린 서클 트윗이 해당 서클 멤버가 아닌 이들에게도 노출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다만 리트윗 버튼은 비활성화돼 있었고, 메시지를 클릭하면 내용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직장

에 대한 불만, 짝사랑하는 이에 대한 험담 등 자신의 사적인 내용을 의도치 않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보기술(IT)업계는 대량 해고 사태 이후 서비스 품질이 악화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 11월 트위터 인수 직후 3700명을 해고했으며, 최근에도 직원을 줄이고 있다.

국내에선 아직 이와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합산 국내 트위터 일간 활성이용자는 평균 250만 명 선이다. 최진석 기자

# 전자피아노로 그랜드피아노 음향 낸다

▶ 으뜸 중기  
다이아톤 ‘아트컬렉션 DPR5160’  
“터치감·표현력 완벽하게 구현”



국내 디지털피아노 전문 브랜드 다이아톤은 피아노에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악기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일 다이아톤에 따르면 이 업체의 대표 제품인 ‘아트컬렉션 DPR5160’(사진)은 디지털피아노에 ‘3센서 해머 건반’을 적용해 그랜드피아노의 터치감과 표현력을 재현했다.

다이아톤은 DPR5160에 공간오디오시스템(SDAS)을 적용해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구현했다. 특히 스피커를 하단이나 피아노 몸체 전면에 배치해 콘서트홀에서 들을 수 있는 그랜드피아노의 사운드를 재현했다.

디지털피아노에 어쿠스틱 음향 효과를 재현한 것도 특징이다. 130여 가

지의 음색으로 작곡을 할 수도 있다. 음악 교과서에 포함된 2200여 개의 곡이 수록돼 가정뿐만 아니라 피아노 학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이아톤은 2003년 국내 악기업계 최초로 기업부설 전자악기연구소를 설립했다. 2007년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음악과일이 담긴 USB를 디지털피아노에 연결하면 건반이 자동으로 연주되는 기술을 적용한 ‘자동연주피아노’를 개발했다. 2014년엔 지능형 전자피아노를 개발했다. 도상인 다이아톤 대표는 “폴란드, 영국 등 40여 개국에 다이아톤 피아노를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LG CNS, MS와 손잡고  
챗GPT 활용 신사업 추진

LG CNS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인공지능(AI) 클라우드를 활용한 신사업에 나선다. MS가 지분을 투자한 오픈 AI의 ‘챗GPT’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협업의 목표다.

LG CNS는 최근 미국 워싱턴 MS 본사에서 최고경영진회의(TMM)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클라우드, 보안,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전환(DX)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두 회사의 합의 내용이다. LG CNS가 미래형 고객상담센터인 AICC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MS는 AI 기술과 자문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KB금융그룹, 현대차의 대형 AICC를 구축하는 등 AI 서비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은행 상담봇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MS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 일상, 당신답게

## 지키다, 삼성화재답게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시나리오 연구\_ 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Zero' 사회를 만드는 \_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_ 기업안전연구소  
빅데이터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_ 헬스케어서비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